



# 장세욱의 컬러강판 초격차... “매출 2조·100만t 생산”

〈동국제강 부회장〉

〈2030년까지〉

동국제강 ‘럭스틸’ 론칭 10주년 국내 컬러강판 점유율 35% 1위 ‘DK 컬러비전 2030’ 전략 발표

미·유럽 등 7개국 8개 거점 세업 증설·제휴 등 글로벌 확장 총력 LNG 감축 등 친환경 경영 강화

“내 새끼.”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럭스틸을 이렇게 표현했다. 현대 사회를 여전히 ‘철기 시대’라고 표현하며 철강 사업 성장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동국제강은 8일 서울 본사에서 ‘럭스틸 론칭 10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 부회장은 직접 연단에서 럭스틸의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 10년간

목표를 발표했다. 이른바 ‘DK 컬러비전 2030’ 전략이다.

럭스틸은 동국제강이 2011년 처음 론칭한 컬러강판이다. 당시 3000종에서 1만여종으로 제품군을 늘렸고, 생산라인도 4개에서 9개로 증설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생산능력이 49만톤에서 85만톤으로 73%나 확장됐다.

동국제강도 이 기간 국내 컬러 강판 점유율을 28%에서 35%까지 높이며 1위로 올라섰다. 프리미엄 제품 판매량을 6만톤에서 28만톤으로, 전체 매출에서 컬러강판 비중도 10%에서 20%로 높였다.

글로벌 시장도 대폭 확대됐다. 럭스틸 론칭 이후 해외 거점을 멕시코 1개에서 인도와 태국 코일센터 등을 추가하며 글로벌 가전 기업에도 판매를 확장, 컬러강판 수출 비중을 2010년 45%

에서 올해 6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장 부회장은 럭스틸을 처음 선보일 당시 철강에 브랜딩을 하는 게 생소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방법이 됐다며, 럭스틸이 철강브랜드 ‘대명사’로 불릴만큼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자부심도 숨기지 않았다.

이어서 앞으로 10년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초격차 1.0’에서 앞으로는 ‘초격차 2.0’ 전략으로 글로벌 지속 성장을 이끌겠다는 포부다.

컬러강판 관련 매출 2조원에 생산체제 100만톤이라는 목표도 설정했다. 컬러강판 매출 비중을 30% 높이고, 글로벌 판매량을 65만톤, 프리미엄 제품 판매도 50만톤을 달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동국제강은 글로벌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미주와 유럽, 동남아와 호주 등 7개국에 8개 거점을 확보하고 라인 증설과 전략적 제휴로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경영 계획도 빼놓지 않았다. 제조공정에서 코팅용 접착제나 화석연료 가열 과정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컬러강판 라인(ECCL)을 세계 최초로 적용하며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2030년까지 절반이나 줄인다는 것.

아울러 실사 구현이 가능한 디지털 프린팅 제품과 안티바이러스 성능 럭스틸 바이오, 20년 내후성 보충라미나 등 전략제품 판매 확대도 노린다. 럭스틸닷컴과 럭스틸 TV 등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스틸샵’ 닷컴에서도 자사 전제품을 판매하는 등 비대면 판매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재용기자 juk@metroseoul.co.kr

## 현대차그룹, 인니 창업지원 프로젝트 성황

스타트업 챌린지 데모데이·시상식 621개팀 지원... 최종 15개팀 선정 컨설팅·최대 4000만원 사업비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도 활발하게 스타트업 육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는 6일 자카르타에서 ‘현대 스타트업 챌린지’ 데모데이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 스타트업 챌린지는 교육과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체인지 메이커’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 운영하는 ‘H-온드림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노하우도 활용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621개 팀이 지원했



다. 최종 15개팀이 선정돼 전문가 경영 컨설팅과 투자유치 기회, 최대 4000만원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상위 3개 팀은 국내 H-온드림 데모데이에도 참가할 수 있다. 현지 정부와 기업 주요 관계자도 여러명 참여해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김재용 기자 juk@

선정된 사업 주요 내용은 ▲유기농 식품 제조 및 친환경 공급망 구축을 통한 농산품 유통 ▲과일 폐기물 등을 활용한 대체가죽 및 플라스틱 연구 ▲폐플라스틱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제조 ▲생활폐기물 재활용 통한 사료 및 원자재 판매 ▲간호사 및 조산사를 환자와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등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이들이 인도네시아의 청년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확대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SK렌터카 장기렌터카 인수 고객 ‘연장보증서비스’ 제공



SK렌터카가 장기렌터카 인수 고객에 보증기간을 늘려주며

신뢰 높이기 시작했다.

SK렌터카는 인수된 장기렌탈 차량에 보증 수리 기간을 연장해 제공하는 ‘연장보증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장기렌터카를 인수하면 6개월이나 12개월, 1만km나 2만km를 선택해 엔진과 미션, 변속기와 스티어링 등 주요 부속 110여개를 보증해주는 내용이다.

장기렌터카 인수 고객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다년간 차량을 이용한 고객에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 등 비용 부담을 덜고 사후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김재용 기자

## 갤럭시 워치4 ‘PXG 골프 에디션’ 출시

삼성전자, 11일부터 한정 판매 4만여 코스 공략 가이드 등 탑재

갤럭시 워치4가 골프 브랜드 PXG와 힘을 합쳤다.

삼성전자는 11일부터 국내에서 ‘갤럭시 워치4 PXG 골프 에디션’을 한정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에디션은 ▲‘갤럭시 워치4 골프 에디션’ ▲프리미엄 PXG 가죽 지갑 ▲PXG 볼마커 ▲PXG 전용 스트랩 2종 ▲PXG 워치 페이스 3종 등으로 구성됐다.

갤럭시 워치4 골프 에디션은 ‘스마트 캐디’ 앱을 탑재했다. 섬세한 거리 측정 기능과 전세계 4만여개 골프 코스 공략 가이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스마트한 골프 경험을 제공한다.

가죽 지갑은 부드러운 천연 소가죽 100% 소재의 겹감과 염소가죽 내피로 제작해 필드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품격 있는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 스테인리



갤럭시 워치4 PXG 골프에디션 /삼성전자

스 소재 PXG 볼마커와 갤럭시워치4를 고급스럽게 꾸밀 수 있는 스트랩도 동봉됐다. 워치페이스 3종도 QR코드를 통해 제공한다.

모델은 갤럭시 워치4 PXG 골프 에디션 44mm 블랙, 40mm 실버 2가지다. 가격은 62만9000원, 59만9000원이다.

11일 예약판매를 시작해 18일 이후 순차 배송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논현 쇼룸

/LG전자

##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서 가을 만끽하세요

LG전자, 27일까지 특별 전시회 아티스트 ‘나난’과 제작·연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가 가을을 예술로 표현했다.

LG전자는 오는 27일까지 시그니처 키친스위트 논현 쇼룸에서 ‘가을아, 천천-히: Fall Slooow-ly’라는 주제 특별 전시회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전시회는 유명 아티스트 ‘나난’과 협업해 만들었다. 쇼룸 외관과 실내 공간을 모두 새로운 캔버스로 활용, 낙엽과 버, 감 등 가을 소재로 영감을 받아 작품을 제작했다.

유독 짧게 느껴지는 가을을 천천히 음미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쇼룸과 작품을 조화롭게 연출했다.

외관도 가을 버와 짙단으로 장식, 감과 사과로 대문을 꾸몄다. 1층라운지에는 LG 올레드 비디오펠 사이니지가 낙엽이 떨어지는 영상과 낙엽 오브제 6000여개를 쌓은 언덕 형태 작품이 전시됐다.

3층에 다다와 포겐폴, 한샘 키친바흐 공간에는 낙엽과 코스모스 오브제로 만든 상들리에와 테이블보 등을 전시했다. /김재용 기자

## “호주 세넥스에너지 인수 협상 진행 중”

포스코인터, 독점 협상권 연장 한콰에너지와 공동 인수도 협의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호주 세넥스에너지 인수 협상을 지속 중이라고 확인했다.

포스코인터는 호주 세넥스에너지 지분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8일 공시했다.

세넥스에너지는 호주에 석유 자산과 가스전 탐사권을 가진 에너지 업체다.

포스코인터는 최근 세넥스에너지 인수를 위해 실사를 진행하고 5일까지 독점 협상권을 받았었다고 알려졌다. 기한이 지났지만 인수 가격과 독점 협상권 연장을 제시받아 지분 인수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는 것.

포스코인터는 한콰에너지와 공동 인수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혹은 1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재공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용기자